

축 사

오늘은 쌍계사가 총림으로 지정되고 산중은 물론 종도들의 공경으로 방장스님을 모시는 경사스러운 날입니다. 모두가 화합하여 한곳에 머물러 정진과 공덕이 우거진 숲과 다를 바 없으니 진정한 총림의 위상이라 하겠습니다.

대비화상과 삼법화상께서 창건한 이후 1500여년 동안 벽암스님에서 고산스님에 이르기까지 선대의 원력과 덕화가 끊이지 않았기에 지금의 고색창연한 자태와 웅장한 모습으로 불자의 마음을 감화해 올 수 있었을 것입니다. 특히 백암스님은 풀조차 어지러이 자라지 않는 곳이 총림이라 하셨으니 비로소 고산대종사의 일생의 뜻을 따라 근념의 실천이 실현된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총림에는 대중을 통솔하는 방장스님이 계셔야 비로소 총림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총림의 모든 수행자를 지도하시는 방장스님은 선 교 율을 겸비한 본분종사기에 고산대종사께서 쌍계총림의 방장으로 승좌하시는 것은 실로 당연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일상생활에 이르기까지 매사에 몸소 실천하는 소탈함에서 종도들은 전 계대화상의 강직한 지계를 익히고, 고요하고 당당한 마음을 담으라는 청정한 계행은 양심까지도 경책하라는 가르침으로 본받고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수행자의 뜻깊음을 온 산하가 청명함으로 증명하고 있는 듯합니다.

이제 후학 제자들은 총림을 총림답게 만드는 진일보에 진력해야 합니다. 그것은 면면히 이어오는 청규(淸規)의 정신을 이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청규는 총림을 움직이는 법전(法典)이며 총림을 운영하는 규칙과 규율의 집대성입니다. 방장스님이 계시지 않는 총림이 존재할 수 없듯이 청규가 지켜지지 않는 총림 또한 존재할 수 없습니다.

몸소 실천해주신 방장스님의 가르침대로 항상 배우려하는 마음가짐을 중요시 여기고 배운 것을 잘 지키고 실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남을 위해 살겠다는 마음가짐으로 항상 감사함을 새기며 마음까지 부지런함을 지니도록 정진의 거듭을 멈추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쌍계사는 선과 차, 그리고 범패의 발상지이기도 하기에 총림의 위상에 더하여 풍요한 결실의 계절과 같이 불자는 물론 국민에게도 친숙하고 편안과 나눔을 주는 총림으로 그 역할을 다하게 될 것입니다.

쌍계총림의 초대 방장으로 승좌하시는 고산 대종사의 지도 아래 한국 불교 최고의 총림으로 발전해 나가기를 기원합니다.

불기2557년 9월 13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승